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로 육성한다

2020~2021년생 혈통등록 암소 700두 유전체 대상우 선정 이달 중 모근 채취 내달 중 유전체 분석·평가 실시 예정



강진군은 지난 15일, 강진 한우를 전국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유전체 검사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한우 유전체 검사와 분석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농장관리 등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전체 검사사업은 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수한 개체를 선별해 개량을 가속화하는 맞춤형 개량사업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선 8기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군은 2020~2021년생(3세대 이상) 혈통등록 암소 700두를 유전체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9월 중 모근(꼬리털)을 채취하고, 10월 중 유전체 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를 토대로 11월 말까지 농가를 방문해 1대1 컨설팅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을 통해 혈통정보 및 한우 형질(도체·체형·번식)능력 분석으로 우량암소를 조기 선발하고, 저능력우는 조기 도태 결정함으로써 개량 세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 경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국제 곡물가격과 사료비가 폭등해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매년 최우수 암소를 선발·관리하고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해 강진한우를 전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 한우 사육규모는 1,197농가, 4만 두로 암소가 7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1등급 이상 평균 출현율을 현재 74%에서 7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한우 등록사업, 한우 맞춤형 정액급급, 한우개량 통합협의회 구성 등 맞춤형 한우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우개량 여행 방지를 위해 자연종부(비거세우) 사육농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자연종부 근절 지도·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향후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종부로 인한 전염성 질병 발생,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소갈 폭락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우 사육농가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문화예술제 기념 강강술래 공연 개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공연이 2022년 진도문화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7일 저녁 8시에 솔비치 진도내 프로방스 광장에서 개최된다. 강강술래는 전남 남해안 일대에 널리 분포 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녀자간의 민속놀이의 하나로 특히 팔월 추석날 밤에 대대적으로 마을 부녀자들이 노래와 춤으로 원형을 이루면서 뛰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단체놀이이다. 강강술래는 지난 1966년에 국가무형문화제 제8호로 지정받아 원형보존과 함께 활발한 전

승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승보전 노력의 결과로 2009. 9. 30.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을 활용한 특별공연으로 강강술래 보유자를 비롯한 보존회원 40여명이 강강술래 전체를 선보임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개최한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지역 발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0월 30일까지...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완도군은 9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6주간 '2022년 완도군 균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균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균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인구·일자리 정책, 미래 발전 정책, 주민 생활 공감 정책 등 균형 전반에

걸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완도 균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https://people.go.kr>) 공모 제안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완도균형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공유누리' 서비스로 이용 가능 공공자원 확대

장흥군이 공공자원의 주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구축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지자체에서 시스템에 시설, 물품 등 공공자원을 등록하면 누구나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장흥군은 올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준비를 통해 공유누리에 개방한 공공자원은 정남진도서관, 정남진전망대, 천관문

학관 등 총 82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공유누리 사이트와 모바일 앱 공유누리에서 원하는 시설 및 물품을 검색하여 확인·예약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부 시설 대관과 물품 대여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자원을 공유누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군민이 공공자원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청춘 어게인' 꽃노년 기억사진 전시회 개최

내일까지 이틀간 해남서림공원 치매안심마을 어르신 사진 담아

해남군은 제15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오는 20~21일 해남서림공원에서 '청춘 어게인 꽃노년 기억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관내 4개소에 지정된 치매안심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해 젊은 시절을

되살려 찍은 사진 60여점을 선보인다. 해남군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옷과 소품, 분장업체 등을 섭외, 지난 8월 주민들의 사진 촬영을 도왔다. 특히 사진촬영은 해남군 문내면 소재 청춘사진관 치유사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희 사진작가가 재능기부를 통해 입체감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년, 따뜻하면서도 활기찬 모습으로 촬영을 마친

주민들은 "사진촬영의 모델이 되어서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며 "노년도 꽃처럼 예쁠수 있다는 위로와 힐링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진촬영은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